

한국 50대 실업자의 구직활동 영향요인에 관한 분석: 회복탄력성을 중심으로

최영준¹, 박금주^{2*}

¹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²단국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An Analysis of Effects on Job Seeking Activities of Unemployed in Fifties in Korea: Based on The Resilience

Young-Joon Choi¹, Geum-Ju Park^{2*}

¹Graduate school of Education, Dankook University

²Center for Teaching and Learning, Dankook University

요약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50대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심리적 요인인 회복탄력성이 구직활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여 우리 사회의 기반을 지탱하고 있는 50대들의 재취업률을 제고하고, 인생 의미와 가치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수도권 지역의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해 고용서비스를 이용하는 50대 실업자를 대상으로, 구직활동 영향요인의 분석을 위해 일반적 특성, 회복탄력성, 구직활동 변인으로 구성된 설문문을 활용하였다. 회복탄력성 변인은 통제성, 긍정성, 사회성의 하위 변인으로 구성하고 구직활동 변인은 구직준비, 구직태도, 구직의지의 하위 변인으로 구성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우리나라의 50대 회복탄력성은 평균이상을 나타내고 있고, 회복탄력성 하위 변인 중에서 긍정성이 가장 높아, 50대들에게 이를 유지시키는 정서적 상담 마련이 요구된다. 둘째, 구직의지 이외에 성별에 따른 회복탄력성과 구직활동에는 유의차가 없어 성차별 없는 50대 대상 구직활동 지원이 요구된다. 셋째, 통제성, 긍정성 등의 회복탄력성이 50대들의 구직활동에 영향을 주고 있고 그 설명력이 35%를 상회하고 있어, 50대들의 회복탄력성을 강화시키고, 이를 구직과 연계하는 취업을 위한 심리 상담과 구직을 위한 취업 교육의 실시를 제안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mprove the reemployment rate of unemployed job seekers aged 50 to 59 by supporting the foundation of our society and enhancing their value of life. We analyzed the impact of resilience, a psychological factor, on job seeking of unemployed people in their fifties. Subjects were visited and provided employment services in the Employment Welfare Plus Center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We devised a questionnaire consisting of three variables of general characteristics, resilience, and job search. Also, the resilience variables comprised sub-variables of control, positiveness, and sociality, and the job search variables involved sub-variables of job preparation, attitude, and willness. Study results the resilience of unemployed persons aged 50 to 59 is above average, and sub-variables of positiveness are highest compared to other sub-variables. Second, there is no significant gender difference in resilience for job search activities. Third, resilience and its sub-variables, such as control and affirmation, affect job-seeking activities.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strengthening the resilience of job seekers in their fifties as well as providing psychological counseling and job training for job-seeking activities.

Keywords : Resilience, The Fifties Aged, The Unemployed, Job Seeking Activities, Reemployment

*Corresponding Author : Geum-Ju Park(Dankook Univ.)

email: ibbungirl2016@nate.com

Received November 22, 2019

Revised January 2, 2020

Accepted March 6, 2020

Published March 31, 2020

1. 서론

2019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50대(50~59세) 연령층은 전체인구의 약 16%에 해당되는 842만명에 달하고 있다[1]. 다른 세대와 달리 한국의 50대들은 자식의 양육과 부모 봉양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샌드위치 세대'라 볼 수 있다[2]. 현실적으로 한국의 50대는 사회를 지지하는 척추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가장중심의 경제생활에서 벗어나 맞벌이 부부가 일반화되기 시작한 세대도 50대일 것이다. 대부분의 50대는 자신과 가정을 위한 생활비 마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우리사회에서 50대의 실업은 한 가정의 경제난으로 직결되어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와 과거세대에 대한 사회 복지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다고 볼 수 있다. 50대 실업은 거시적으로 가계소득 감소, 자녀교육 부담의 확대, 소비침체, 조세수입감소, 복지비용 증대, 생활불안증대 등을 야기시켜 국가 재정과 국민의 경제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줄 것이다[3]. 경제 불황 속에서 50대들의 실업은 개인적으로 초조하고, 불안한 심리적 상태에서 의기소침과 무력감, 자존심 하락, 자아실현의 실패는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태에 놓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놓인 50대 중년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한 심리상태에서 벗어나게 하는 회복탄력성이 요구되는 시기이다[4].

회복탄력성은 학자마다 정의가 다를 수 있지만 진로 및 직업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고통과 역경 등에도 불구하고 본래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는 긍정적 역량과 스스로 부정적 감정을 억제하는 통제적 역량, 그리고 다른 사람과 공감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사회적 역량으로 분류하고 있다[3, 5-8].

직업과 관련된 회복탄력성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기혼중년남성의 회복탄력성과 은퇴 태도가 의미있는 삶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회복탄력성의 하위변인 중 긍정성이 높게 나타나 안정적인 삶을 통해 긍정적인 정서를 갖고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여 건강한 삶에 대한 이해가 높음을 확인하였다[6]. 권혜림(2018)의 경찰공무원의 회복탄력성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통제성, 사회성, 긍정성으로 구성된 회복탄력성이 직무태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7]. 박상우(2017)의 베이비부머 퇴직자의 회복탄력성이 진로전환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베이비부머 퇴직자의 회복탄력성 중 긍정성은 높은 정적인 영향, 사회성은 낮은 정적인 영향, 통제성은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3]. 신영식, 권

오혁(2018)의 미용전공 대학생의 진로장벽, 회복탄력성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회복탄력성이 높은 대학생은 진로장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진로준비행동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8].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연구는 중년남성, 경찰공무원, 퇴직자, 대학생의 다양한 연구대상에 대해 회복탄력성이 각각 의미있는 삶, 조직몰입, 진로전환, 진로준비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복탄력성은 어떤 일의 성취나 극복이 필요한 상황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회복탄력성과 직업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실시되었는데, 우리 사회의 가정의 중심을 구성하는 50대 중년, 특히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시행된 연구는 한정적이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 사회의 50대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심리적 요인인 회복탄력성이 구직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기반을 지탱하고 있는 50대들의 구직활동을 제고하고 그들의 인생 의미와 가치를 높이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우리사회에서 가계유지에 중추역할을 하고 있는 50대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심리적 부담을 극복하는 회복탄력성이 그들의 구직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지의 내용은 선행 연구와 전문가 검토를 통해서 내용타당성이 입증된 문항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지는 조사대상자의 성별, 학력별, 이직회수별 등의 일반적 특성변인과 회복탄력성 변인 그리고 구직활동 변인으로 구성하였다. 회복탄력성 변인은 선행연구[3-8]에서 제시되었던 통제성, 사회성, 긍정성의 3개 하위변인으로 구성하였다.

구직활동 변인은 선행연구[4, 8-12]에서 도출된 구직준비, 태도, 의지의 3개 하위변인으로 구성하였다. 구직활동 하위변인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신영식, 권오혁(2018)은 진로준비행동으로 도구준비활동(취업 정보지 구독, 진로관련 교재 구입 등), 실천적 노력(전문가와 상담, 취업설명회 참가경험 등), 정보수집활동(진로상담)을[8], 이선아(2018)는 구직행동을 준비단계(취업정보 수집)와 실행단계(이력서 제출)[9], 이상록(2000)은 구직활동을 구직노력, 구직노력의 효과성, 구직방법, 구직태도로 구성하였다[10]. 김종욱(2012)에서는 기업에 대한

구전 정보가 구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컸고 부정적 정보가 더 큰 영향력이 있었다[11]. 문영미(2006)에서는 구직활동을 구직활동과 구직태도로 정의하고 구직활동의 요소로 구직노력, 구직방법, 구직태도를 하위요소로 구성하였다[12]. 각 연구의 주요변인에 대해 전문가의 내용타당도 검토와 논의를 거쳐, 본 연구에서는 구직활동을 구직준비[5, 9, 12], 구직태도[5, 10, 12], 구직의지[5, 9, 11, 12]의 3개 하위변인으로 구성하였다. 회복탄력성과 관련된 변인과 구직활동과 관련된 변인들은 리커트 5단계 평정척도(Likert-type)로 측정하였다.

2.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고용 서비스를 이용하는 50대 실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18년 10월에서 2019년 4월에 걸쳐 실시하였다.

2.2 조사도구

조사도구로 설문지를 활용하였고, 설문지는 50대 실업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성별, 학력별, 이직회수의 3가지 변인으로 구성하였다. 주요변인인 회복탄력성 변인으로 통제성, 사회성, 긍정성의 10개 하위변인과 구직활동 변인으로 구직준비, 구직태도, 구직의지의 12개 하위변인 등 총 22개 변인으로 주요변인을 구성하여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회복탄력성 변인들에 대해서는 Table 1과 같이 요인 분석을 통해 구인타당도와 신뢰도분석을 통해 내적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를 구하였다.

회복탄력성(x)은 선행연구에서 구인타당성이 입증된 통제성, 긍정성, 사회성의 3가지 하위변인으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통제성(x1)은 곤경 시 감정통제:a1, 논쟁 시 감정통제:a2, 평소 자기통제력:a3, 끈기지속력:a4의 4가지 하위변인으로, 긍정성(x2)은 낙관태도:a5, 감사지속성:a6, 주위에 감사:a7의 3가지 하위변인으로, 사회성(x3)은 재치:a8, 인정:a9, 부조(扶助)친구:a10의 3가지 하위변인으로 구성하였다.

요인분석결과 회복탄력성(x)은 통제성(x1), 긍정성(x2), 사회성(x3)의 3가지 구성요인으로 분석되었고, 전체 설명력은 약 67.82%로 나타났다. 3개 하위변인의 신뢰도분석결과 통제성(x1)은 Cronbach α 통계량이 0.812, 긍정성(x2)은 내적 신뢰도 계수는 0.849, 사회성(x3)의 내적 신뢰도 계수는 0.863로 나타났다.

Table 1. Validity analysis and Reliability of Resilience

Areas		components		
		x1	x2	x3
x	regulation a1	.814	.200	.166
	regulation a2	.820	.037	.272
	regulation a3	.666	.269	.354
	regulation a4	.663	.442	-.122
	positive a5	.250	.737	.284
	positive a6	.286	.830	.137
	positive a7	.091	.837	.325
	relationship a8	.225	.055	.601
	relationship a9	.136	.320	.706
	relationship a10	.081	.241	.791
Eigen Value		2.446	2.405	1.931
% of Variance		24.462	24.045	19.310
Cumulative %		24.462	48.508	67.818
Cronbach's α		0.812	0.849	0.863
number of contents		4	3	3

구직활동 변인들도 Table 2와 같이 구인타당도와 신뢰도를 구하였다. 구직활동(y)은 선행연구에서 구인타당성인 확인된 구직의지(y1), 구직준비(y2), 구직태도(y3)의 3개의 하위변인으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구직의지(y1)는 조건미달 시에도 지원:b1, 임시직도 지원:b2, 기피직도 지원:b3, 조건미흡시도 취업:b4, 불만족에도 취업:b5의 5가지 하위변인으로, 구직준비(y2)는 취업학원등록:b6, 자격증준비:b7, 취업정보수집:b8, 취업강의수강:b9의 4가지 하위변인으로, 구직태도(y3)는 취업에 최선을:b10, 취업준비에 시간과 노력투자:b11, 취업은 유익하고 바람직:b12의 3가지 변인으로 구성하였다. 구직활동(y)의 요인분석결과 구직의지(y1), 구직준비(y2), 구직태도(y3)의 3가지 요인으로 구직활동이 분석되었고, 전체 설명력은 약 71.34%로 나타났다. 3개 하위변인의 신뢰도분석결과, 구직의지(y1)와 구직준비(y2), 구직태도(y3)의 내적 신뢰도 계수는 각각 0.855, 0.886, 0.844로 나타났다.

Table 2. Validity analysis and Reliability of Employment Activity

Areas		components		
		y1	y2	y3
y	will1 b1	.653	.276	.292

Areas	components		
	y1	y2	y3
will2 b2	.728	.043	.057
will3 b3	.858	.115	.067
will4 b4	.864	.066	.119
will5 b5	.783	.101	.022
preparation1 b6	.075	.825	.131
preparation2 b7	.111	.802	.040
preparation3 b8	.124	.908	.056
preparation4 b9	.143	.869	.089
attitude1 b10	.157	.089	.864
attitude2 b11	.086	.214	.869
attitude3 b12	.087	-.021	.844
Eigen Value	3.145	3.064	2.352
% of Variance	26.211	25.537	19.597
Cumulative %	26.211	51.747	71.344
Cronbach's α	0.855	0.886	0.844
number of contents	5	4	3

2.3 자료수집 및 분석

자료수집은 수도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고용서비스를 받고 있던 50대 실업자를 대상으로 총 3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254부(85%)를 회수하였다. 회수된 설문지에서 설문지 중단되거나 이중응답으로 내용이 훼손된 6부의 설문지를 자료분석에서 제외시켜 총 248부의 수집된 자료를 중심으로 통계 분석하였다. 연구를 위해 기술통계,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 t-test 차이검정, 분산분석 등의 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3. 연구결과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인 50대 실업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3과 같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 38.7%(96명), 여성 61.3%(152명)로 나타났다.

학력별로 살펴보면, 고졸 53.2%(132명), 고졸미만 32.3%(80명), 전문대졸 7.3%(18명), 대졸 6.5%(16명), 대졸초과 0.8%(2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직회수는 4회 이상 28.2%(70명), 2회 26.6%(66명), 3회 25.0%(62명), 없음 11.3%(28명), 1회 8.9%(22명)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3. Characteristics of study participants

Areas		number	Ratio(%)
Gender	Male	96	38.7
	Female	152	61.3
	Total	248	100.0
Educational Level	under high school graduation	80	32.3
	high school graduation	132	53.2
	technical university graduation	18	7.3
	university graduation	16	6.5
	above university graduation	2	0.8
	Total	248	100.0
number of turnover	0	28	11.3
	1	22	8.9
	2	66	26.6
	3	62	25.0
	4 over	70	28.2
	Total	248	100.0

회복탄력성과 구직활동 변인의 평균과 편차를 살펴보면, Table 4와 같이 회복탄력성의 평균은 3.52, 편차는 0.512였다.

회복탄력성의 평균은 3.52였으며 회복탄력성 3개 영역의 만족도 평균은, 긍정성(x2) 3.69, 통제성(x1) 3.51, 사회성(x3) 3.37순이었다. 통제성(x1)에서는 끈기지속력(a4)이 3.5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평소 자기통제력(a3)이 3.43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긍정성(x2)에서는 주위에 감사(a7)가 3.7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낙관태도(a5)가 3.63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사회성(x3)에서는 인정(a9)이 3.4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재치(a8)가 3.2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구직활동(y)의 경우, 평균은 3.20, 편차는 0.554로 나타났다. 구직활동 3개 영역의 평균은 각각 구직태도(y3) 3.91, 구직의지(y1) 3.00, 구직준비(y2) 2.70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직의지(y1)에서는 조건미달 시에도 지원(b1)이 3.1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피직도 지원(b3)이 2.8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구직준비(y2)에서는 자격증 준비(b7)가 2.7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취업정보수집(b8)이 2.6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구직태도(y3)에서는 취업은 유익하고 바람직(b12)이 3.9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취업준비에 시간과 노력투자(b11)가 3.8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Table 4. The descriptive analysis of variables

variable		mean	SD
resilience x		3.52	.512
self regulation ability x1		3.51	.603
	a1	3.52	.800
	a2	3.51	.725
	a3	3.43	.734
	a4	3.57	.755
positive x2		3.69	.703
	a5	3.63	.789
	a6	3.72	.810
	a7	3.73	.806
human relationship x3		3.37	.565
	a8	3.29	.739
	a9	3.42	.698
	a10	3.39	.792
employment activity y		3.20	.554
will y1		3.00	.727
	b1	3.16	.838
	b2	3.14	.938
	b3	2.84	.947
	b4	2.98	.939
	b5	2.90	.904
preparation y2		2.70	.966
	b6	2.70	1.05
	b7	2.73	1.18
	b8	2.65	1.12
	b9	2.72	1.13
attitude y3		3.91	.622
	b10	3.93	.755
	b11	3.85	.728
	b12	3.94	.653

성별에 따른 회복탄력성과 구직활동 변인들의 평균 등의 통계분석을 살펴보면, Table 5와 같다.

Table 5. The analysis of variables in the gender

variable		N	M	SD	t	p
regulation x1	m	96	3.54	.673	.589	.557
	f	152	3.49	.556		
positive x2	m	96	3.60	.828	1.491	.138
	f	152	3.75	.607		
human relationship x3	m	96	3.45	.632	1.823	.070
	f	152	3.31	.513		
resilience x	m	96	3.53	.633	.185	.854
	f	152	3.52	.421		
will y1	m	96	2.85	.800	2.488	.014*
	f	152	3.10	.663		
preparation y2	m	96	2.72	1.076	.248	.805
	f	152	2.69	.894		
attitude y3	m	96	3.85	.773	.999	.320
	f	152	3.94	.504		
employment activity y	m	96	3.14	.716	1.244	.165
	f	152	3.24	.418		

성별에 따른 유의성 분석을 보면, 회복탄력성과 하위 변인에서는 나타나지 않았고, 구직활동의 하위변인 중 구직의지(y1)에서만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를 보였다. 즉, 구직의지 이외의 성별에 따른 회복탄력성과 구직활동 변인과 하위변인에 따른 차이는 통계학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회복탄력성 하위변인과 구직활동 변인 간 상관관계는 Table 6과 같이 나타났다. 50대 실업자의 회복탄력성과 구직활동 변인은 유의수준 $p < 0.01$ 에서 서로 상관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변인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50대 실업자의 구직활동(y)과 회복탄력성 하위변인 간의 상관관계에서 구직활동(y)과 통제성(x1)의 상관계수가 0.538로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다음으로는 긍정성(x2) 0.459, 사회성(x3) 0.436 순으로 나타났다. 회복탄력성 하위변인간의 상관관계에서는 통제성(x1)과 긍정성(x2)가 0.539로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긍정성(x2)와 사회성(x3)이 0.535, 통제성(x1)과 사회성(x3) 0.447 순으로 나타났다.

구직활동(y)과 구직활동 하위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구직활동(y)과 구직준비(y2)가 0.788로 높은 상관을 나타냈고, 구직활동(y)과 구직의지(y1) 0.706, 구직활동(y)과 구직태도(y3) 0.621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6. The analysis of correlation between variables

variable	x1	x2	x3	y1	y2	y3	Y
x1	1						
x2	0.539**	1					
x3	0.447**	0.535**	1				
y1	0.309**	0.268**	0.293**	1			
y2	0.319**	0.262**	0.301**	0.285**	1		
y3	0.579**	0.505**	0.364**	0.272**	0.218**	1	
y	0.538**	0.459**	0.439**	0.706**	0.788**	0.621**	1

구직활동(y)에 영향을 미치는 회복탄력성 하위변인들의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통제성(x1), 긍정성(x2), 사회성(x3)의 3개 회복탄력성 하위변인들로 이루어진 구직활동(y)에 관한 회귀식이 유의하게 제시되었다. 회귀계수의 유의미성을 살펴보면, 통제성(x1), 사회성(x3), 긍정성(x2)이 $p < 0.05$ 의 유의수준에서 구직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구직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회복탄력성 변인들의 표준화 회귀계수는 통

제성(x1)이 0.367로 가장 영향력이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사회성(x3) 표준화 회귀계수 0.190, 긍정성(x2) 표준화 회귀계수 0.160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제성, 사회성, 긍정성의 순으로 구직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Table 7. The regression analysis of variables effecting on the employment activity

Regression Model	B	S.E	Beta	t	p
constant	.930	.202		4.604	.000***
x1	.337	.058	.367	5.849	.000***
x3	.186	.061	.190	3.044	.003**
x2	.126	.052	.160	2.408	.017*

R= 0.595 R²= 0.354
Adj R²= 0.346 F= 44.786 p= 0.000***

수정된 결정계수 R²은 0.354로 나타나 3개 회복탄력성 하위 변인들이 구직활동에 약 35% 정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즉, 3가지 회복탄력성 변인들이 한국 50대들의 구직활동을 유의미하게 약 35%가량 설명하고 있었다.

4. 결론

이 연구는 50대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심리적 요인인 회복탄력성이 구직활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여 우리사회의 기반을 지탱하는 50대들의 구직활동을 제고하고 그들의 인생 의미와 가치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 첫째, 우리나라 50대들의 구직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회복탄력성과 3가지 하위변인 통제성, 긍정성, 사회성은 평균 3.0이상(영향력 있음)으로 나타났다. 3개 하위 변인 중 긍정성이 가장 평균이 높았고 사회성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둘째, 성별에 따른 회복탄력성 변인 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구직활동 하위변인 중에서는 구직의지가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유의미성을 나타내었다. 셋째, 구직활동과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회복탄력성 하위변인은 통제성이었고, 회복탄력성 하위변인 간에는 통제성과 긍정성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았다. 구직활동과 하위변인 간의 상관관계에서는 구직활동과 구직태도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넷째, 한국 50대 들의 회복탄력성 하위변인은 통제성, 사회성, 긍정성 순으로 구직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회복탄력성은 구직활동에 약 35% 정도 영향력이 있다.

본 연구결과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50대의 회복탄력성은 평균이상을 나타내고 있어, 심리적으로 이를 유지시키는 정기적 상담 마련이 요구된다. 그리고 심리적 상담에 취업분야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구직의지 이외에 성별에 따른 회복탄력성과 구직활동에는 큰 차이가 없어 성차별 없는 50대 대상 구직활동 지원이 요구된다. 셋째, 통제성, 긍정성 등의 회복탄력성이 50대들의 구직활동에 상당부분 영향을 주고 있고 그 설명력이 35%를 상회하고 있어, 50대들의 회복탄력성을 강화시키고, 이를 구직과 연계하는 취업을 위한 심리 상담과 구직을 위한 취업 교육의 실시를 제시한다.

References

- [internet] KOSIS,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Available From: <http://kosis.kr> (accessed Aug. 21, 2019)
- Y. J. Choi, "Search for Economic Education Strategies for Baby-Boomers in Korea", *The Korean Journal of Economic Education*, Vol.19, No.1, pp.123-145, 2012.
- S. W. Park, "A Study on the Career Transition for Babyboomer retirees: Based on the Resilience",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0, No.5, pp.155-162, 2019. DOI: <https://doi.org/10.5762/KAIS.2019.20.5.155>
- H. S. Lee, Y. G. Lee, "The Impact of the Middle Age's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to Reemployment",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7, No.5, pp.33-40, 2019. DOI: <https://doi.org/10.14400/JDC.2019.17.5.033>
- A. Oshio, H. Kaneko, S. Nagamine, M. Nakaya, "Construct validity of the adolescent resilience scale", *Psychological report*, 93, pp.1217-1222. 2003. DOI: <http://dx.doi.org/10.2466/pr0.2003.93.3f.1217>
- Y. J. Oh, S. N. Y, E. J. Oh, "The Effect of Resilience and Retirement Attitudes Perceived by Middle-aged Married Men on a Meaningful Life",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Vol.34, No.4, pp.157-174, 2017. DOI: <http://dx.doi.org/10.7466/JKMA.2016.34.4.157>
- H. R. K, J. J. J, "The Effects of Police Officer's Resilience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The Korea Contents Society*, Vol.18, No.3, pp.499-508, 2018. DOI: <https://doi.org/10.5392/JKCA.2018.18.03.499>
- Y. S. S, O. H. K, "The Effects of Career Barriers and Resilience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Cosmetolog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Design Culture*, Vol.24, No.1, pp.343-353, 2018.

DOI: <http://dx.doi.org/10.18208/ksdc.2018.24.1.343>

- [9] S. A. Lee, "A Moderating Effect of Perceived Employabil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Barriers and Job Search Behavior: A Study on the Career Interrupted Women", *Journal of The Korean Date Analysis Society*, Vol.20, No.4, pp.2061-2076, 2018.
- [10] S. R. Lee, "The Effects of Job Search Behaviors on Re-employment of the Unemployed in Korea",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43, 2000.
- [11] J. W. Kim, *The influence of word-of-mouth information direction and type on job seeking activities*,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pp.57-58, 2012.
- [12] Y. M. Moon, A study on Influence of Job Search Activities on Elderly Employment, *Social Welfare Review*, Vol.11, pp.139-156, 2006.

최 영 준(Young-Joon Choi)

[정회원]



- 1990년 3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업교육학과 (교육학석사)
- 2008년 8월 : 송실대학교 대학원 평생교육학과 (교육학박사)
- 2010년 3월 ~ 2019년 6월 : 단국대학교 교양교육대학 교수
- 2019년 7월 ~ 현재 :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관심분야>

평생교육, 교육관련 법 및 제도, 직업교육

박 금 주(Geum-Ju Park)

[정회원]



- 2002년 8월 :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전자계산교육 (교육학석사)
- 2013년 2월 :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박사)
- 2017년 9월 ~ 현재 : 단국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연구교수

<관심분야>

평생교육, 교수학습과정개발, 직업진로교육과정개발